

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[행정관리역량 부문]

2017. 1.

금 용 위 원 회

1. 행정관리역량 분야별 평가 결과

[1] 정부조직 · 인력의 효율적 운영

-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 · 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
-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 · 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정원제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 (16년도 1명 감축)

[2] 국민 소통·협업

- 형식적으로 1~2회 시행하는 의견수렴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통해 부처 역량 집중
- 현장메신저, 금융위 옴부즈만, 기업애로해소 특별반,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의 운영을 통해 소통·협업 성과 극대화

[3] 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

- 전문직위를 확대 지정 (2016년 23개 직위 → 2017년 25개 직위)
 -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사업 부처로 선정되어 2017년도 약 15개 직위를 전문직공무원(7년간 전보제한)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예정
- ⇒ 장기간 보직환경을 조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
(전문직 비율 2016년도 11.4%→ 2017년도 18.9%)

[4]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

- 정보화 자원관리 등록 프로세스 보완 및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추진 체계 강화
- 정기적 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 확대지정 및 지속적인 관리

[5]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

-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·활용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 수립
- 홈페이지, 포탈서버 등의 정보보안 취약점 조치 후 개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
2. 분야별 우수사례

< (1)정부조직·인력의 효율적 운영 분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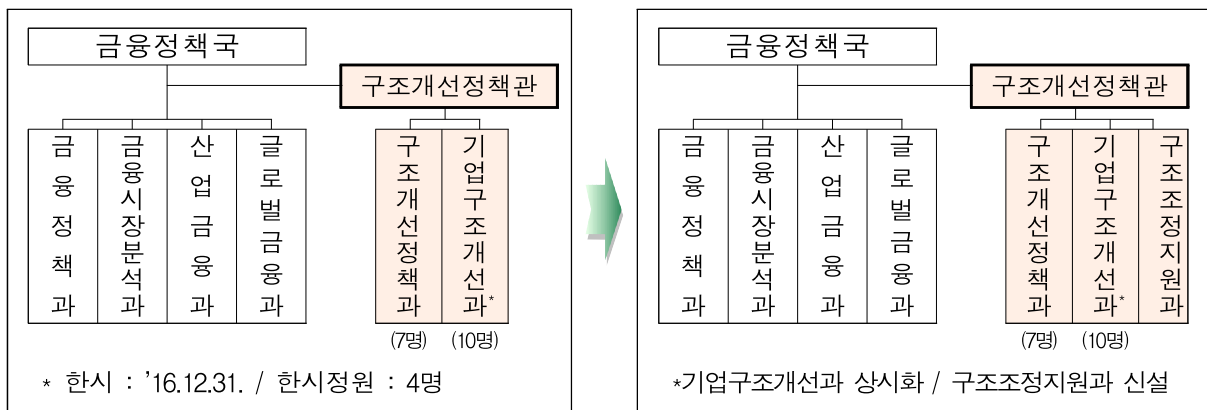
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기업구조개선과 연장 (금융위)

□ 추진 배경

- 글로벌 저성장시대 돌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(성장산업→성숙산업)함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필요
- 한시기구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이 2016.12.31.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(~2018.12.31.) 및 상시화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 (직제 개정)

- 기구 : 현재 한시기구(기업구조개선과)는 상시기구로 전환하고, 구조조정지원과를 추가 신설



- 인력 : 현재 한시정원(5급 3명, 4.5→4급 직급조정)은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, 신규 9명 증원(4급1, 5급6, 6급2)

□ 추진성과

-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대응의 조직적 기반 마련

※ 인사관리의 측면에서는 한시기구 종료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을 방지하고, 과도한 전보를 막아 관련 업무의 지속성·전문성 향상

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

- **(효과성)** 주기적인 현장점검 활동 및 다양한 제도 운영(①현장메신저, ②금융위 옴부즈만, ③기업애로해소 특별반, ④찾아가는 금융신문고) 등의 운영을 통해 금융 정책의 성과 극대화

- **현장메신저** : 금융소비자·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「현장메신저」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 해소

<「현장메신저」 구성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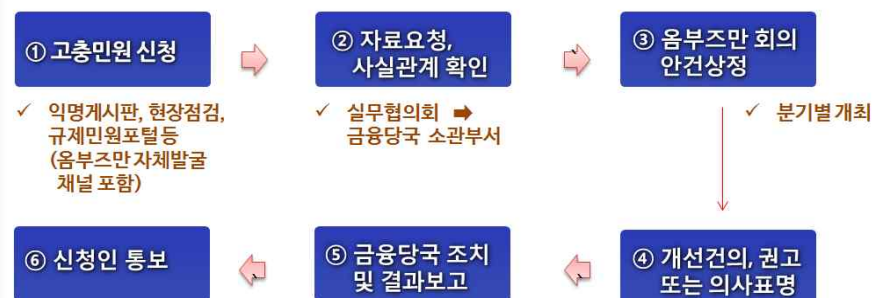
업권	은행·지주	생보	손보	카드	금융투자	합계
인원	30명	29명	25명	24명	27명	135명
(소비자)	(15명)	(9명)	(7명)	(12명)	(11명)	(54명)
(실무직원)	(15명)	(20명)	(18명)	(12명)	(16명)	(81명)

<현장메신저를 통해 받은 건의사항의 개선>

-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→ 카드남발 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
- 금융회사 고객정보 중 이메일, 휴대전화도 한번에 수정 추진 → 오고지로 인한 개인 정보유출 및 손해 발생 대비 강화
-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가능한 서류 사전공지 → 고객의 시간·비용 절약 가능

- **옴부즈만** :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함

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



-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: 수요자관점의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「기업애로 해소 특별반」을 구성(총괄반장 : 부위원장), 금융위 고위급(1급, 4명)이 직접 34개 기업을 면담 (16년 5.30~7.7일)

<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통한 건의 수용 사례>

①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

☞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에 대해 기존 3천만원 특례보증 한도를 4천만원으로 상향 (신보, 하반기)

② 신생, 창업기업의 투자자 탐색 지원

☞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 관심투자분야,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(연내), 신생기업 IR 지원사업 추진 ('17년 1분기)

③ 그 외,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기간 단축, 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신설, 클라우드 펀딩 기업 공시정보 집중 등도 추진

-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: 금융위원회는 그간 '지역밀착형 금융 발전전략'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(3월)을 시작으로 5개(대전, 강원, 부산, 광주, 대구) 주요 도시에서 '찾아가는 금융신문고'를 운영(16년 3.9~9.6)

이슈 선별	현장 점검	심층 분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산업·기업 지원강화 ·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·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 ·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	>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찾아가는 금융신문고' * 5개 지역, 141개 지역금융회사 접촉 상담, 240여건의 건의과제 수집(3.9~9.6) 	>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지역금융 전문가 TF' 운영 * 지역금융기관, 연구원 정책금융기관, 농수산 투자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

- (전파가능성)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 '현장'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요소이며, '16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타 부처로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

- **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이** “금융회사의 건의과제가 소관부서의 적극적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개혁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,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,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”하였다고 평가

□ **(부처노력도)** 형식적으로 1~2회 시행하는 현장의견수렴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정원 조직을 통해 부처 차원의 역량 집중

- '15.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7주차('16.11.30일)까지 1,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,600건의 건의사항 접수

⇒ 그 중 현장답변,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 3,269건*을 회신(수용률 48%)

* 수용 : 1,569건, 불수용 : 1,252건, 추가검토 : 448건

- '15년도의 운영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'16년도에는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킴
(‘효과성’ 작성부분의 기업애로해소 특별반,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)
- 금융위원장도 ‘현장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간부회의시 국별 자료 양식에 ‘현장점검’ 목차*를 최상단에 배치·검토

* ①[현장점검] ②[금융개혁 추진현황] ③[주요업무 추진현황] 순으로 보고·검토

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보직 제도 운영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융위는 조직·인력 규모가 작아 정기적인 인사가 어렵고, 인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사발령 조치를 취하고 있음
 - 이로 인해 체계적인 필수보직기간 관리가 어렵고,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

□ 개선방안 내용

- 전문직위 확대 : 전문직위 지정 확대(2016년 23개 → 2017년 25개) 및 직급 향상으로 운영 내실화
 -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과장급(4급) 및 6·7급 직위 신설
-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실시 :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고 시범실시 부처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시범운영 예정
 - 금융회사인허가, 규제, 검사·제재, 관련법령 제·개정 등 금융회사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 15개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

□ 기대 효과

- 대상 정원수 201명 중 38개 직위가 전문직(전문직위 25개, 전문직공무원 15개, 중복지정 2개)로 지정되어 해당분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
 - 전문직 지정 비율이 2016년 11.4%에서 2017년 18.9%로 향상

□ 향후 계획

- 전문직 직위에 대한 인센티브(수당, 승진가점 등)를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
-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 및 지정 인원 확대 검토

금융위원회 웹 포탈 ActiveX 제거 이행계획

□ 추진배경

- 우리 위원회 및 소속·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포탈이 ActiveX를 사용하고 있어 웹 호환성 및 보안 취약점 등 문제 대두
- 따라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ActiveX에 대한 제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

□ 웹 포탈 ActiveX 사용현황

- (대민서비스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 37개 웹 포탈에서 113개 사용
- (행정업무시스템) 금융위 업무포탈 등 2개 시스템에서 8개 사용

<웹 포탈 ActiveX 사용현황>

구 분		홈페이지수	ActiveX 없는 홈페이지수	ActiveX 있는 홈페이지수	
				홈페이지수	ActiveX수
합 계	계	59	18	39	121
	대민	57	18	37	113
	행정	2	0	2	8
금융위원회	계	3	1	2	4
	대민	2	1	1	1
	행정	1	0	1	3
금융정보 분석원	계	1	1	0	0
	대민	1	1	0	0
	행정	0	0	0	0
산하기관	계	55	16	37	117
	대민	54	16	36	112
	행정	1	0	1	5

□ ActiveX 제거계획

○ 추진전략

- 2개 홈페이지는 '15년 제거 완료
- 그 외 대민서비스용 홈페이지는 '16년 제거 완료
- 행정업무시스템용 홈페이지는 '17년부터 연차적 제거 추진

○ 연도별 계획

- (2015년) 대민서비스 2개 홈페이지 제거 완료
- (2016년) 대민서비스 22개 홈페이지 제거 완료
- (2017년 이후) 2개 행정업무시스템 포함 15개 시스템은 기관 자체 제거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

연도별	계		2015년		2016년		2017년이후	
	홈페이지 수	ActiveX수	홈페이지 수	ActiveX수	홈페이지 수	ActiveX수	홈페이지 수	ActiveX수
계	39	121	2	3	22	87	15	28
대민서비스 홈페이지	37	113	2	3	22	87	13	23
행정업무시스템	2	8	0	0	0	0	2	8

□ 기대효과

- ActiveX 의존에 따른 프로그램의 과도한 설치, 프로그램 간 충돌 등 ActiveX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
- ActiveX 제거를 통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의존성을 완화하고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 제공

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활동 강화

□ 추진 배경

-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 조치가 필요
 -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·대응체계를 강화

- 국내 보안업체(이니텍)의 코드서명*이 해커에 의해 유출, 해커가 해당 회사로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포함한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했을 가능성을 보도
 - * 프로그램의 배포자가 누구인지 나타내주는 전자서명으로 코드서명 유출시 해당 회사가 배포한 것처럼 위장하여 악성코드프로그램 배포 가능

□ 주요 추진내용

-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은행, 증권, 카드 등 **소 금융권***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탐지·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
 - * 통합보안관제시스템에 은행, 증권사, 저축은행, 여전사 등 총 187개 금융회사 참가
-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차세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('16.10월)을 통해 대량의 사이버 위협정보를 신속히 분석

□ 추진성과

-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,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,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

□ 향후 계획

-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